

이재명, 한일정상회담앞서 “굴종외교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민주,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굴욕외교·쌍서틀 외교” 비판 李 “한일 관계 정상화 필요하지만 국익 재물 삼아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건은 너만 채우려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전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

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서둘러 회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쌍서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할란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김대중-오부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동의, 국민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몫시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 안 계실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균형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훼손될 것이라 국민의 우려 크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 허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 국익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합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돼 오히려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략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다”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과 슬픈 경험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등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통했다”며 “일본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다”며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 사과 없었음에도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이라는 개인적 동정심에 감응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울러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거사 정리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다”며 “이제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이지”고 반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라며 “사과라는 표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면전에서 내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것이냐.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뺏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이나”라며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

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거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왜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 원망스럽다”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감정이 아닌 공식적 사과를 받아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미국에는 평화를 팔아 넘겼고 일본에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번엔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힘들때 부모 얼굴 떠올라...노후 보장, 우리 모두의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을 키우느라 한평생을 바친 아버님 어머니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도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삼살이가 힘겹다는 마음이 들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곤 한다”며 “모진 풍파에도 7남매를

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부모, 국가 책임 대신 지고 있어”

품어내신 어머니, 모질게 원망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뒤늦게 이해하게 된 아버지, 두 분이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낸 몸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부모는 국가가 저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의 짐을 덜수록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있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는지보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모의 노후 보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어린이도 청년도 노년도 모두 내일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적었다.

이 대표는 “나아가 특별히 이름 붙여 기념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광주 북구의회, 상반기 제286회 임시회 개최

구정질문 등 8일 간의 일정 진행

광주 북구의회(회장 김형수)가 2023년 상반기 구정질문이 포함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출석요구서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다.

5월 10일과 11일에는 2023년 상반기 구정질문이 진행된다.

구정질문 1일차에는 김건연 의원이 ▲말바우시장 활성화 및 주변 환경 개선 ▲북구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질문을, 정달성 의원이 ▲자원순환을 통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과 관련된 질문을 일괄 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한다.

2일차에는 강성훈 의원이 ▲지역의 랜드마크

크인 영산강의 활용 방안 ▲하수, 하천관리 등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쾌적한 공원 조성 등에 대해 일괄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실시한다.

구정질문은 북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KCTV 광주방송 및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어 12일과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정 주요 현안에 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시기인 만큼, 북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심도 있는 질문으로 북구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